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혁명사상만세!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04호 【주체 제25978호】 주체107(2018)년 4월 14일 (토요일)

당의 령도따라 내 나라,

내 조국을 더욱 부강하게 하기

위해 힘차게 일해나가자!

뜻깊은 래양절을 맞으며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장병들의 레식 진행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인 래양절을 맞으며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조선인민군 륙군, 해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전략군, 특수작전군 장병들의 레식이 13일 금수산 태양궁전광장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김정각동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리명수동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를 비롯한 인민군지휘성원들이 레식에 참가하였다. 위대한 대원수님들께 송고한 경의를 드리며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 충정을 맹세하는 연설을 김정각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대원수님을 천세만세 높이 받들어모시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인민군대가 당의 군대로서, 혁명의 기둥, 주력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며 전투정지훈련을 강화하여 사회주의 조국을 굳건히 보위해갈 전체 인민군장병들의 신념과 의지의 맹세를 피력하였다. 이어 분별행진이 있었다. 【조선중앙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이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제31차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평양에 도착

당과 정부의 간부들 비행장에서 따뜻이 맞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이 제31차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4월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김정은동지와 습근평동지의 력사적인 첫 상봉후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중국예술단은 조중문화교류의 초석을 굳건히 다지고 두 나라 인민의 형제의 정을 더욱 두터이 하는 데 이바지하게 될 친선의 예술사절들이다. 우리 나라를 방문하는 200여명으로 구성된 중국예술단에는 근 60년간의 자랑스런 발전 역사를 수놓으며 국내에서는 물론 세계적으로도 명성을 떨치고있는 중앙발레무용단과 중앙가극원, 국가연극원의 이름있는 예술인들이 망라되어있다.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 선전부, 중화인민공화국 문화 및 관광부의 일군들이 예술단과 동행하고있다.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는 중국예술단의 우리 나라 방문을 진흥적인 조중친선관계를 귀중히 여기며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보다 생기있고 활력있게 계승해나가기에 중국공산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립장의 표시로 간주하고 중국의 예술인들을 가장 가까운 벗으로 열렬히 환영하고있다. 중국예술단을 맞이하는 평양국제비행장에는 조중 두 나라 국기들이 나뭇가지 수 많은 군중들이 손기발과 꽃다발을 들고 모여들어 환영의 물결을 이루고있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의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수용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후보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제1부부장인 김여정동지, 문화상 박춘남동지를 비롯한 당과 정부의 간부들과 관계부문 일군들이 중국예술단을 따뜻이 맞이하였다.

우리 녀성예술인들이 송도 당외연락부장 리군 문화 및 관광부 부부장을 비롯한 중국예술단의 지휘성원들, 주요배우들에게 꽃다발을 드렸다. 친근한 립방에 도착한 기쁨을 안고 중국 예술단 성원들은 군중들의 열렬한 환영을 받으며 속도로 향하였다. 조중 두 당, 두 나라 최고령도자동지들의 직접적인 발기와 깊은 관심속에 실현된 중국예술단의 우리 나라 방문은 두 나라 인민들의 귀중한 재부인 조중친선관계가 진흥을 계승하고 시대와 함께 전진하면서 더욱 공고발전되고있음을 힘있게 과시하는 중요한 계기로 된다. 화창한 봄계절에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인민의 친선의 사절들은 이르는 곳마다에서 우리 인민의 따뜻한 환대와 열렬한 환영을 받게 될것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보내시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재일동포자녀들의 민족주의적민족교육을 위하여 일본돈으로 2억 1374만부의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을 총편에 보내시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 재일동포자녀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교육원조비와 장학금은 지금까지 모두 164차례 걸쳐 일본돈으로 482억 1973만 390부에 달한다. 본사기자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민주공고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민주공고공산당 중앙위원회에서 선물을 보내어왔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보내어 온 선물을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에게 13일 래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주조 무관단, 외국의 단체들과 인사들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 무관단이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드리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 드리는 꽃바구니와 축하편지를 13일 인민무력상인 육군대장 박영식동지에게 무관단 단장인 알렉세이 바르투코프 로씨야방위사관 무관이 전달하였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라는 글씨가 모셔져있었다. * * *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 태양절에 즈음하여 13일 중국 김립속문중학교, 오스트리아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친선문화협회, 일본과 북남조선과의 우호를 추진하는 회, 일조학술교류협회, 일본 《도쿄-평양무지개다리》, 백두산 지구과학고, 캄보자 글로벌국제투자유한회사, 중국항일혁명렬사 장용화가족, 일본 전 부수상 가네마루 상의 가족과 팔로비아조선친선협회 위원장 페르난도 알레스, 김정일장군 배후친목회 위원장 에스두아르도 마르페네스 베레스, 국제반제

래양절 경축 준비위원회 여러 나라에서 결성

래양절경축준비위원회가 5일 도이칠란드 조선문화연구소에서 결성되었다. 준비위원회 위원장으로 소조 책임자 만프레트 슈나이데르가 선출되었다. * * * 준비위원회는 4월 5일부터 15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을 정중하는 로본화, 사진전시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 * * 태양절경축 공조준비위원회가 3월 30일 브라질에서 결성되었다. * * * 준비위원회는 4월 1일부터 30일까지를 경축기간으로 정하고 이 기간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업적,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위인상을 출판보도물을 통해 널리 소개선전하며 경축모임, 강연회, 영화감상회 등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들을 조직하기로 하였다. 【조선중앙통신】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가 중국예술단을 위하여 환영연회를 마련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국제부가 제31차 4월의 봄 진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한 중국예술단을 환영하여 13일 저녁 평양고려호텔에서 연회를 마련하였다. 연회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과 리진군 주조 중화인민공화국 투쟁전선대사, 대사관성원들이 초대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 리창근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문화성의 일군들이 연회에 참가하였다. 연회에서는 먼저 리수용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우리 인민에 대한 중국인민의 따뜻하고 진실한 우의의 정을 안고 평양에는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대외연락부장 송도동지가 인솔하는 중국예술단의 전체 동지들을 두 당 최고령도자동지들의 숭고한 의도를 실천에 옮겨나가는 친선의 예술사절로 반갑게 맞이한다고 말하였다. 조선로동당 위원장동지의 력사적인 첫 중국방문으로 조중친선관계가 새로운 높은 단계에 들어선 시기에 중국의 명성높은 대규모예술단이 우리 나라를 방문한것은 조중친선을 새시대의 요구에 맞게 계승발전시켜나감에 두 나라 문화교류의 초석을 더욱 굳게 다지는데서 깊은 의의를 가진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중국예술단의 전체 동지들이 앞으로 조중문화예술교류의 선구자가 되어 훌륭한 예술 활동을 적극 벌임으로써 두 나라 인민들에게 기쁨과 고무를 더해주러라는것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는 중국예술단의 우리나라 방문공원이 훌륭한 성과를 거두러라는 확신을 표명하였다. 다음으로 송도동지가 연설하였다. 연설자는 중국예술단의 이번 방문이 두 당 최고령도자동지들께서 이룩하신 중요한 합의를 리행하고 조중친선관계발전을 추동하는 첫걸음으로 되며 중조사이의 의의있는 문화예술활동으로도 된다고 말하였다. 김정은위원장동지께서 중국예술단의 이번 방문을 고도로 중시하시며 특별한 조치들을 취해주시었다고 하면서 그는 이번 공연에서 반드시 훌륭한 성과를 거두어 중조 두 당, 두 나라의 친선적인 령향에 새로운 한계를 장식할것이라는 확신을 표시하였다. 김정은위원장동지의 명도따라 조선당과 인민이 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를 이룩하고 사회주의위업을 힘차게 전진시켜나가고있는것을 목격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중국당과 정부는 조선의 경제가 발전하고 인민들이 행복할것을 진심으로 바라며 김정은위원장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조선로동당의 명도따라 조선인민이 사회주의위업수행에서 보다 큰 전진을 이룩하러라는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하였다. 연회참가자들은 조선로동당 위원장 김정은동지의 건강을 축원하여, 전통적인 조중친선의 강화발전을 위하여 잔을 들었다. 연회는 시중 형제적이며 화기애애한 분위기속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수령님의 탄생일인 4월 15일은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가장 뜻깊고 경사스러운 명절입니다. 김 정 일

전 인민적 송가 총성의 노래

1. 장백의 험한 산발 눈보라 헤치고
혁명의 수만리길 걸어오셨네
내 조국 찾아주신 위대한 수령님께
인민들은 일편단심 충성을 맹세하네
2. 찬이슬 맞으시며 농장을 찾으시고
눈오는 이른새벽 공장을 찾으시네
크나큰 그 은덕은 만대에 길이 빛나리
인민들은 심장으로 충성을 노래하네
3. 삼천리 내 조국에 해빛은 찬란하고
행복의 노래소리 넘쳐흐르네
통일된 강산에서 인민들은 대를 이어
위대하신 수령님 모시고 천만년 살아가리



아버이수령님 그리는 인민의 마음 대하되여 굽이치는 만경대교 향집 본사기자 김흥준 찍음

위대한 사랑과 헌신의 한평생

태양절!
우리 인민은 해마다 4월 15일을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로 경축하고 있다. 진보적인류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그리움과 경모의 마음을 안고 다채로운 경축행사를 성대히 진행하고 있다.

얼마나 뜻깊고 경사로운 날인가.
주체의 태양이 솟아오른 민족 최대의 행운의 날이 있어 위대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이 만방에 빛을 뿌리게 되었고 우리 인민이 행복과 영광만을 누려올수 있지 않았던가.

하기에 우리 인민은 자라나 아버지수령님의 안녕과 건강을 축원하며 그이께서 탄생일의 그 하루만이라도 편히 쉬실것을 간절히 념원하였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언제나 자신의 생신날을 보물창처럼 여기시며 짐무릎 보시거나 현저지도의 길을 이어 가시었다.

인민의 유족한 살림을 위하여, 아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하여, 사랑하는 조국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아베에 전하는 사실들은 뜻깊은 4월 15일이 전하는 감동깊은 이야기들이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수령님은 혁명가적품모에 있어서나 인간적품모에 있어서나 그 누구도 견줄수 없는 위인중의 위인 이시다.」

천후 처음으로 맞은 아버지수령님의 생신날이었다.

그날도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른새벽에 중화권의 한 농업협동조합(당시)을 찾으시어 축축한 밭머리에서 이웃 일꾼들과 자리를 같이하시고 농사일을 논는 해주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다른 마을에서 기계로 밭을 심는다는것을 아시고는 기계농사를 하도록 앞길을 밝혀주시였으며 그 부근에 좋은 썩터가 있다는것을 아시

고는 또 그곳으로 향하시었다.

썩터가 있는 그곳은 마을의 젊은이들 도 들어서기 지어하는 진땀이었다.

일꾼들이 못 가신다고 말씀드렸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전에 일제놈들과 싸울 때에는 그보다 더 험한 길도 다녔다고 하시며 진땀에 들어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모신 일행은 시간이 퍼그나 흘러서야 썩터에 이르러 되었다. 팔팔 땀을 흘리는 썩터를 바라보시며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이 물을 리용하여 물고기를 길러 인민들에게 공급하려고 하시면서 급시 썩터를 물고기들을 보시는듯 환한 미소를 지으시었다.

어느날도 아닌 생신날에 험한 진창길을 걸으시면서도 인민들에게 물고기를 먹일수 있는 양어장자리를 찾게 된것이 그리도 기쁘시어 시종 만족해하신 우리 수령님.

그날 저녁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오늘날 정말 기쁜 마음으로 생일을 쇠셨다고 하시면서 휴식이 마땅하고 노는것이 아니라, 나라일이 잡되어 마음이 즐겁고 기분이 좋으면 그것이 곧 휴식이다. 농업협동화도 잘되어가고 나라일이 잘되어가니 마음이 즐겁다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오늘도 우리 인민들은 아버지수령님께서 내 나이 한 10년만 젊어도 마작에 들어가서 석판을 깨보겠다고 절절하게 말씀하신 사실을 잊지 않고있다.

우리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을 더 해주는 이 이야기는 수령님께서 개천, 안주 지구를 현저지도하시면서 탄생 65살을 맞으실 때 엮은 사실이다.

4월의 명절을 하루 앞둔 저녁에도 현저지도의 길에서 석탄생산문제를 두고 마음쓰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르며 일꾼들은 최송하기 그지없었다. 일꾼들은 아버지수령님께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다리시는데 수령님께서 생신날에 지방에 계시면 장군님께서 얼마나 서운해하시겠는 하고서 겨우 아뢰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생각깊은 안색으로 저 멀리 평양하늘가를 이속도록 바라

고결한 총성과 토적의식의 세계

불멸의 화폭에 깃든 사연
아버이수령님의 탄생 65살을 맞으며 사진촬영자들은 수령님의 초상사진을 훌륭히 촬영하여 더 정중히 모시고싶은 간절한 소원을 누르지 못하였다. 이 사실이 위대한 장군님께 보고되었다.

4월 15일 아침이 밝아왔다. 이른아침 당중앙위원회청사로 간 촬영자들이 휴게실에서 아버지수령님을 만나뵈기를 기다리는데 위대한 장군님께서 환한 미소를 담으시고 들어서시었다. 그이께서는

사람들은 우리 나라에서 언제부터 천연색텔레비존방송의 첫 전과가 날았는지 아느냐는 말도 못하였다. 집집마다에서 비쳐나오는 밝고 선명하고 아름다운 천연색텔레비존화면에는 위대한 장군님의 뜨거운 손길이 어여워졌다.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천연색텔레비존방송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천연색텔레비존방송개시를 위한 마지막시험결과를

천연색텔레비존방송이 개시된 날

날리는 날이었다.

이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시험방송화면을 보여주셨다. 그때 일꾼들의 마음은 저기 긴장되어있었다.

시험방송이 끝나자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만면에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이만하면 대단하다고, 화면이 좋다고 칭찬하시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었다.

준비를 잘했다가 매일 방송하도록 합시다. ...

하여 다음날 첫 천연색텔레비존방송의 전과가 날았고 우리 인민은 천연색텔레비존화면을 통하여 해빛같이 밝고 인자하신 아버지수령님의 영상을 우러러보실수 있게 되었다. 우리 나라 방송역사가 기록된 날은 바로 위대한 수령님의 탄생 62살이 되는 주체 63(1974)년 4월 15일이었다.

전선길에서 드리신 경의

아버이수령님의 탄생 85살이 되는 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조국호의 전선길을 걸고계시었다.

전선호수의 인민군부대를 사찰하신 그이께서는 위대한 수령님의 혁명사적이 깃들어 있는 지혜산에 이르시었다. 표식비탈에 이르신 위대한 장군님께서는 오늘 4월 15일을 최전선에서 맞았으니 수령님께 경의를 드리지 못하였다고 하시면서 지

서에서 세운 위대한 수령님의 현저지도표식비탈에서 수령님께 경의를 드리라고 뜨겁게 말씀하시었다. 이어 위대한 장군님의 우렁우렁하신 음성으로 울리었다.

《자매, 경례!》

그날도 드리신 뜻깊은 경의, 그것은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주체 혁명위업을 굳건히 이어가실 위대한 장군님의 열성의 신념을 보여주는 영원불멸한 화폭이었다.

본사기자

인민을 위한 숭고한 자욱

로동당시대에 우르르 전변된 서해 기슭에도 황금벌의 새 역사를 펼쳐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이 력히 새겨져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간척지건설과 같은 대자연개조 사업의 발기자는 우리 수령님이십니다.》

은 물만이 통제 넘실거리는데 온천군 운하리의 농장배에 가면 어구의 새로 뜬 논에서 일하고있는 거룩한 자욱을 가슴뜨겁게 더듬을수 있다.

수십년전 6월 어느날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간척지로 들어가는 길 어구에서 새기신 아버지수령님의 거룩한 자욱을 가슴뜨겁게 더듬을수 있다.

은 물만이 통제 넘실거리는데 온천군 운하리의 농장배에 가면 어구의 새로 뜬 논에서 일하고있는 거룩한 자욱을 가슴뜨겁게 더듬을수 있다.

사실 그 논들은 전제 간척지들을 놓고보면 옛 어구의 극히 적은 한 부

를 지나지 않았다. 그와는 비교도 안되게 넓은 땅이 밀물때는 바다가 되고 썰물때는 물이 되고있었다. 그러나 로동은 논에서 농사에 대한 위대한 수령님의 판적이 그 넓디넓은 불모의 땅을 범두에 두신것임을 미처 알수 없었다.

로인의 말을 기다리시던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바다바람에 옷자락이 날리는 간척지쪽에 올라서시어 끝간 데없이 펼쳐진 땅을 이속도록 바라 보시었다.

이제 보니 휴식이 생긴다고, 간척지만 개간하면 전체 인민에게 흰쌀밥을 먹이고도 남겠다고 하시며 수령님께서는 좀처럼 간척지에서 시신을 매지 못하시었다. 그러시다가 함께 온 일꾼들에게 좀더 나가보라고 하시었다.

일꾼들은 이 앞으로는 나가실수 없다고 절절히 말씀하시었다. 하지만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괜찮소, 더 나가봅시다, 인민을 위한 길인데 무엇을 가리겠습니까, 길이 없으면 우리가 이 간척지에 첫걸음을 내시라고 하시면서 감랑만으로 성품 절음을 내짚으시었다.

일꾼들은 뜨거우것이 북받쳐올라 목이 짝 메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황금나락 설 레이는 간척지들의 풍경을 그려보시 는듯 환히 웃으시며 견고 또 견고시

이속고 진땀한가운데 들어서신 아버지수령님께서는 사방을 다시 둘러보시며 이 밭을 개간하라고 하시 며 못내 기쁨을 금치 못하시었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넓은 바다를 쪽 가 로막아 간척지를 개간하고 바다가의 언덕에는 문화주택을 보기 좋게 건설 해야 한다고, 간척지를 대적으로 개 간하여 이곳에 기계로 농사짓는 농장 들을 잘 꾸려주라고 교시하시었다.

이날의 위대한 수령님의 구상은 바 야호로 눈부신 현실을 펼쳐어 오메대 안 불모의 땅이었던 간척지가 드넓은 우토벌로 변모되었다. 수령님께서 첫걸음을 내신 그곳에 농장들이 터어

우리 수령님께서 간척지에 내신 첫걸!

사람들이여, 인민의 행복을 위해, 버바다 설레이는 풍년벌을 위해 우리 수령님께서 한평생 걸으신 길 이 바로 이런 헌신과 로고의 길이여! 음을 가슴에 삼가 뜨겁게 새기시라, 본사기자 한영민

《4월의 명절을 노래하세》, 《4월 날까지 그속한 4월은 싱그러운 봄 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해준다. 아름다운 이 봄날 위대함을 이어 가던 우리는 수도의 어느 한 공원에서 발걸음을 멈추지 않을수 없 었다. 아름다운 조선마차고리를 입고 나선 너인들의 기쁨넘친 노래소리가 우리의 마음을 끌었던것이다.

꽃구름 피어나네 태양절 불멸절 장신도 새봄이요 마음도 새봄일세 아버지수령님께 큰절을 드리자 어화동등 태양절 꽃바다 설배 이세

태양절을 앞둔 때에 노래 《태양절 불멸절》을 들으니 어찌저 감회가 류달랐다. 아버지수령님을 높이 모신 무한한 영광과 행복감에 넘쳐 우리 인민 이 부르는 4월의 노래가 얼마나 떨 치 하는 초거성을 누를수 없었다. 하여 우리는 위대함을 돌아와 부 러두려운 《조선노래대전집》을 펼쳐 보게 되었다.

펼쳐보니 다시금 가슴뜨겁게 되앙 는 노래들이었다.

《조선노래대전집》을 펼치고

부터 시작하여 영생불멸의 혁명 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 건인민 적송가 《총천의 노래》, 가요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의 가슴에 계시네》 등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노래는 이루 헤아릴수 없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품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한품에 안아 음명을 지켜주고 보살피주는 한없이 넓고 은혜로운 품이었다.》

일제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여 나라와 인민을 위하여 한평생을 다 바 쳐오신 위대한 수령님, 일제에게 매앗긴 조국을 찾기 위 해 압록강을 건너시던 10대의 그

대한 칭송의 노래들을 무수히 날 는것이였다.

너무도 인자하시여, 너무도 사려깊 으시여 아버지수령님을 뵈을때면 누 구나 격정을 금할수 없었고 그이에 대한 무한한 호모심을 억제할수 없 었다.

바로 그 열화같은 인민의 진정이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고마움과 경모 의 정을 분출시켰고 그이의 안녕을 바라는 축원의 마음이 감동깊은 선 불로 엮어져 절절한 노래로 울려나 왔던것이였다.

그 무엇보다도 막을수 없는 격정의 분출로 인민의 심장에서 울 러나온 《수령님 밤이 떠 갔었습니 다》, 《수령님 모신 전사의 영광》, 《수령님 사랑친 내 나라》를 비롯 한 노래들...

어찌 그뿐이라. 《불노래》와 같은 조국에 대한 노래들에도, 《자력갱생 기치높이 다시한번 대고조로》, 《세상에 부럼 없으라》를 비롯하여 우리 인민의 투쟁과 생활을 담은 노래들에도 아버지수령님에 대한 인민의 무한한 충정의 세계가 뜨겁게 담겨져있다.

이렇듯 세상에 우리 인민처럼 자기 수명에 대한 노래를 많이 지어 부른 인민은 그 어느 나라에도 없다.

그래서 이 나라의 노래만 들어보 아도 아버지수령님의 이인위천의 한평생과 조국에 대한 그이의 불같은 사랑을 깨부르 걸갈할수 있고 그이께서 걸으신 끝없는 로고와 그 헌신의 자욱자욱을 새겨안을수 있는 것이였다.

진정 인민의 부르는 노래와 더불어 절세위인의 성스러운 역사가 이 강산에 더욱 뜨겁게 흐르는 것이다.

이런 숭엄한 감정에 젖어있는 우리에게는 《조선노래대전집》이 위대한 수령님의 거룩한 한평생을 기록한 혁명실록처럼, 아버지수령님과 영원한 화폭을 이은 우리의 혼연 일체의 서사시처럼 안겨왔다.

본사기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을 경축하여

전국 직맹 일군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대회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을 경축하여 전국직맹일군들과 직맹원들의 웅변대회가 13일 중앙로동자 회관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최희동지와 직맹일군들, 로동자, 직맹원들이 웅변대회에 참가하였다.

웅변대회에서는 《조선의 행운》, 《피를》을 비롯한 제목으로 사려깊은 광산기계공장 직맹이동해설사 김은정동지, 북광화학발전연합기업소 로동자 윤영림동지 등이 출연하였다.

출연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 탄생하신 주제 1(1912)년 4월 15일은 우리 민족과 인류에게 있어서 가장 큰 행운의

해, 민족최대의 경사스러운 날이라고 격찬하였다.

위대한 태양이 솟아오른 그날이 있어 천년만물이 드러졌던 이 나라에 조국애방의 날이 밝아왔고 진승의 7.27도 왔으며 인민이 주인된 주체시대가 펼쳐지게 되었다고 그들은 강조하였다.

그들은 사상도 명도도 품도도 위대한 수령님들 그대로이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를 우리 당과 혁명의 최고수위에 높이 모신것은 태양민족의 더없는 영광이고 대행운이라고 격찬하였다.

만민이 불세출의 위인으로 만들어 어모신 어머니수령님의 인민적공포

를 감명깊게 전하는 출연자들의 토로는 참가자들의 심금을 뜨겁게 울려주었다.

아이들을 나라의 왕으로 여기시며 자라나는 새 세대들에게 철따라 새 교육과 학용품을 안겨주시면서 자기신에서는 언제나 수수한 옷차림으로 인민을 위한 헌지지도의 길을 끝없이 이어가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다짐은 경모의 정이 차넘치는 웅변들은 장대를 끝없는 격정으로 끓어넘치게 하였다.

출연자들은 백두의 혈통을 꽃같이 이어가자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만을 하늘처럼 굳게 믿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동지의

명도를 충직하게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기치높이 당중앙뜨락에 운명의 피를 흘리고 사회주의강국건설업무를 앞장기 위하여 힘차게 싸워나감에 대하여 열렬히 호소하였다.

웅변들을 들으며 참가자들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생애와 업적을 깊이 빛내이며 당의 품속에서 자라난 나라의 만아들, 핵심부대담게 주체혁명위업의 최후 승리를 앞장기 위한 전진적인 총공세에서 영웅적 김일성-김정일로동계급의 기상을 남김없이 떨쳐갈 지를 굳게 가다듬었다.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 진행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을 맞으며 농업근로자들과 농근맹원들의 경축모임이 13일 황주군 문화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황해북도당위원회 부위원장 리일혁동지, 판매부, 황주군안의 농근맹일군들, 농업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조선농업근로자동맹 중앙위원회 위원장 김창영동지의 보고에 이어 황해북도농근맹위원회 부위원장 최성남동지, 도농업과학연구소 연구사 리광희동지 등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밑에 주체조선의 존엄과 국력이 최상의 경지에서 떨쳐지고 공화국강건 일촌을 승리의 대축전으로 빛내이기 위한 총공격전이 힘있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탄생 106돐을 뜻깊게 경축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일찌기 10대의 어린신 나이에 혁명의 길에 나서신 어머니수령님께서 위대한 생애의 전기간 심오한 사상론과 비범한 명도력, 거창한 혁

의건설의 역사적전제마다에서 농업근로자동맹이 당의 믿음직한 방조자, 동행자로서의 사명과 임무를 다해나도록 결속력을 손잡아 이끌어 주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인민들에게 희생함에 고기국을 먹지 않는다는 고귀한 정신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올려 알뜰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내배와 버섯 생산을 늘려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농근맹조직들은 대중속에서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최선적선전선동맹들과 사회주의경쟁을 드세게 벌여 협동법마디에 수령의 유년관철전, 당정책위원의 불굴이 세차게 라던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공화국강건 일촌을 이루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승전포성을 울려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그 어떤 천지공파가 몰아쳐와도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만을 굳게 믿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와 사상도 승결도 발결속도 같이하는 참된 동지, 진정한 전우가 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당의 뜻을 받들고 농업부문에서 우량종자와 다수확농법, 능률적인 농기계들을 대대적으로 받아들이고 농사를 과학기술적으로 지어올려 알뜰생산목표를 기어이 점령하며 축산물과 과일, 온실내배와 버섯 생산을 늘려 인민들이 실지 덕을 보게 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모든 농근맹조직들은 대중속에서 당의 농업정책을 결사관철하기 위한 최선적선전선동맹들과 사회주의경쟁을 드세게 벌여 협동법마디에 수령의 유년관철전, 당정책위원의 불굴이 세차게 라던지도록 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언급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공화국강건 일촌을 이루는 뜻깊은 올해에 농업전선에서 기어이 승전포성을 울려나감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태양절경축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노래해요 태양절 우리 불멸절》이 13일에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일환동지, 청년동맹중앙위원회 1비서 연은노래연곡 《은 세상에 자랑하자 우리 태양절》, 《만경대는 꽃동산》으로 시작되었다.

무대에는 무용 《명절맞이 부채춤》, 손풍금과 하모니카3중주 《혁명가요연곡》, 피아노와 노래 《조국찬가》, 너중창 《정말고귀워요》, 제숙무용 《지체체총마라고 달려가자 미래로》, 경음악 《혁명을 위하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만경대학생소년궁전 예술소조원들의

종합공연 진행

맞이하는 학생소년들의 끝없는 환희와 기쁨이 장내에 차넘치는 속에 공국찬가》, 너중창 《정말고귀워요》, 제숙무용 《지체체총마라고 달려가자 미래로》, 경음악 《혁명을 위하여》를 비롯한 다채로운 종목들이 울렸다.

무대에는 무용 《명절맞이 부채

2중창 《김정은원수님은 우리 아버지》 등의 종목들에서 출연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후대사상, 미배사상의 뜻을 정히 받들어 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따사로운 품속에서 세상에 부림없는 행복만을 누리려는 우리 학생소년들의 모습을 펼쳐보였다.

학생소년들의 공연을 보면서 관람자들은 온 나라 아이들이 사랑의 환풍에 안아 강성조선을 떠메고나갈 미래의 주인공들로 역세게 키워주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께서 계시어 내 조국의 앞날은 끝없이 위창찬할것이라는 굳은 확신에 넘쳐 있었다.

항상 《김정은원수님 발걸음따라 앞으로》로 끝난 공연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주체의 영원한 태양으로 높이 받들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께 끝없이 충직한 참된 소년혁명가, 유능한 혁명전진로 튼튼히 준비해나갈 학생소년들의 열의를 잘 보여 주었다.

출연자들은 후대에 대한 사랑을 당과 국가의 제일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어린이들의 밝은 웃음을 위하여 억만금도 아낌없이 물려주시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애국적인 일가분들의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



명실천으로 주체조선의 영원한 승리와 번영을 위한 만년재부를 마련해주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함일혁명기의 불길속에서 농민운동의 빛나는 전통을 마련하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새 조국건설과 조국해방전쟁, 사회주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

만경대 방문

리기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고문을 단장으로 하는 태양절경축 제일본조선인축하단이 1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축하단성원들은 먼저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와 만경대일가분들의 혁명력사를 보여주는 사적자료들과 사적물

들이 전시되어있는 만경대혁명사적관을 참관하였다.

유서깊은 태양의 성지를 찾은 그들은 조국과 민족을 위하여 한평생을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의 고귀한 혁명생애와 애국적인 일가분들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깊은 감동속에 돌아

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방문을 마치고 단장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만경대를 찾으니 김일성대원수님에 대한 그리움이 더욱 강렬해진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대원수님은 사회주의조선의 시조, 주체의 영원한 태양이시며 우리 제일조부모들의 자애로운 어머니이다.

우리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을 영원히 높이 모시고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원수님의 명도를 받들어 총련의 애국위업을 더욱 힘차게 전진시켜나갈것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성원들

만경대 방문

태양절에 즈음하여 박수철 반제민족민주전선 평양지부 대표와 지부성원들이 13일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방문대행집을 찾은 그들은 만고절세의 애국자이시며 민족의 어머니이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에 대한 뜨거운 경모의 정을 안고 사적물들을 주의 깊게 돌아보며 만경대일가분들의 고결한 혁명생애에 깊은 감명을 표시하였다.

대표는 4월의 봄명절을 맞으며 위대한 태양을 정중하는 온 겨레와 인류의 한가노이 울려 퍼지는 속에 만경대고향집을 찾으니 어머니수령님의 위인상에 대하여 더욱 절감하게 된다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소박하고 평범한 농가에서 탄생하신 어머니수령님께서도 민중을 하늘처럼 내세우시고

에스빠냐 인민공산당 대표단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당정직구 위원인 반제전대성 비서 마리아 페레스 반도바는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나인민공산당대표단이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만경대고향집을 찾은 손님들은 일찌기 혁명의 길에 나서시어 조국애방의 역사적위업을 이

룩하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불멸의 혁명력사에 대한 해설을 들으며 소중히 보존되어있는 사적물들을 주의깊게 돌아보았다.

그들은 만경대옛집방문을 기념하여 사진을 찍었다.

또한 대표단은 당장전사적관, 류정안과 종합병원, 문수물놀이장 등을 참관하였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가

민주공고공산당 대표단을 만났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 리수용동지는 13일 태양절에 즈음하여 우리 나라를 방문하고있는 엘베르 보스과 이세폼베총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민주공고공산당대표단을 만나 담화를 하였다.

리수용동지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 밑에 우리 당과 인민이 자력자

강의 위력으로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전제없는 기적과 혁신을 창조하고있는데 대하여 언급하고 조선로동당과 민주공고공산당사이의 친선관계와 강화발전시켜나갈것이라고 말하였다.

엘베르 보스와 이세폼베총비서는 방문기간 조선로동당과 인민이 존경하는 김정은동지의 현명한 령도따라 주체사상의 기치를 높이 들고 사회주의를 승

주조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태양절에 즈음하여 주조의 외교 및 국제기구 대표들이 13일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을 참관하였다.

그들은 조선혁명과 세계사주화 위업실현에 거대한 공적을 쌓아 올린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에 대한 인류의 다함없는 호모의 정에 떠받들려 붉게 피어난 불멸의 꽃들을 경탄속에 돌아보았다.

손님들은 감상루에 글을 남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

파주끼스만 도착

외무상 리용호동지를 단장으로 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대표단이 파주끼스만을 방문하기 위하여 13일 두산에 도착하였다.

이에 앞서 12일 대표단은 로

씨야련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엘베라 슈켄제비서를 단장으로 하는 로씨야련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도착

태양절에 즈음하여 김철성 제1부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이 13일 평양에 도착하였다.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 지부위원회 위원장일행 귀국

알렉세이 표지프키 정의의 로씨야당 연해변강 지부위원회 위원장과 일행



제20차 김일성화축전장 참관, 로씨야 연방공산당 대표단, 로씨야 연방공산당 모스크바시위원회대표단,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대표단

인류의 영원한 태양을 우러러 더치는 칭송의 노래

열화같은 위인함모의 세계를 펼친 경축의 무대

제 31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 2일 공연 진행

위대한 태양의 거룩한 존함으로 빛나는 조국땅에 위인칭송열기가 더욱 뜨겁게 끓어오르고있는 가운데 제31차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이 편입 성황리에 진행되고있다.

평양극장, 모란봉극장, 봉화예술극장, 김원균명칭 음악종합대학 음악당, 평양교예극장에서 13일 공연이 있었다.

시인의 극장들과 음악당은 위인함모의 노래들을 안고 축전도시로 달려온 예술사절들의 공연을 보기 위해 모은 관객층근로자들, 청년학생들, 주조 여러 나라 외교 및 국제기구대표부 성원들, 우리 나라에 체류하고있는 외국손님들, 해외동포들로 호반연이 이루어졌다.

인류공동의 경사스러운 태양을 맞는 만민의 심장마다에 천출위인들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과 경모의 정을 더해 주며 경축의 무대들이 펼쳐졌다.

몽골전군협주단 예술인들은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존모심을 안고 영생불멸의 혁명송가 《김일성장군의 노래》를 훌륭히 형상하여 관객들의 심금을 울렸다.

장중하게 울려 퍼지는 위인송가는 우리의 흥성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모든것을 바치고 세계 자주화위업수행에 커다란 공헌을 하신 위대한 수령님이시야말로 불세출의 위인, 인류의 대성인이심을 사람들의 가슴마다에 다시금 깊이 새겨주었다.

끝없는 사랑의 길을 이어가시는 아버지수령님을 우러르며 우리 인민들이 심장으로 부르던

노래 《수령님 밤이 퍼 깊었습니까》를 라오스국립예술단의 여성독창가가 절절하면서도 감동있게 불렀다.

별가리나서가가가수와 몽골전군협주단 여성독창가는 《김정일 동지께 드리는 노래》,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의 곡목들에서 한층 생명의 불꽃을 높이 드시고 강철의 의지와 초인간적인 정력으로 주체의 사회주의위업을 백승의 한길로 이끄시여 그 중구적완성을 위한 억연태도를 쌓으신 위대한 장군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의 정을 터지쳤다.

정력적인 사상리론활동으로 자주시대의 위대한 지도사상을 마련하여 주신 아버지수령님의 불멸의 업적을 칭송하여 기쁘로스승악단의 예술인들은 아름다운 선율과 주옥같은 가사로 엮은 판현악과 노래 《주체가 가리키는 빛발》을 무대에 올렸다.

작품을 통하여 우리 인민들은 자주화된 새 세계건설의 앞길을 휘황히 밝혀 주신 절세위인들의 거룩한 사상리론적업적은 진보적인류의 마음속에 소중한 간직되어 있음을 절감하며 태양민족의 긍지와 자부심을 더욱 뜨겁게 새겨주었다.

로씨야 윌리나야 스페베 까즈크레슬단 예술인들, 보르투갈지휘자, 일본 일조음악예술교류회

독창가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명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나갑 우리 인민의 억척의 신념과 의지를 담은 합창 《불타는 소원》, 판현악 《발걸음》 등의 종목을 흥분한 성향과 세련된 지휘로 훌륭히 형상하여 장내를 격동시켰다.

여러차례 평양을 방문하고 인상깊은 공연무대에 출연하여 우리 인민들과 친숙해진 로씨야 엠. 에. 빠뜨니즈키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합창단은 이날 공연에서도 관객의 절찬을 받았다.

출연자들은 합창 《아 그대 광활한 초원여》, 《까슈사》, 무용 《까시모브의 춤》, 노래와 춤 《거리로 따라》를 비롯한 여러 종목을 로씨야 인민의 애국심과 자기 민족의 전통적인 생활습관을 진실하게 재현하였다.

《천신의 꽃다발》, 《행이》, 《시중군들》 등의 무용종목들에서 로씨야 클래식국립무용단은 박력있으면서도 독특한 춤동작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쿠바 클래식레드독주자, 도이쉴란트 피아노연주자, 프랑스 알베르 마나르명칭 실내악단 현악4중주단은 여러 종류의 기악곡들을 세련된 연주기법과 조화로운 울림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단, 벨라루스국립음악아카데미악구 고전발레단, 폴스카독창가들과 제1차 평양국제음악콩쿨에서 우수한 실력을 발휘한 여러 나라의 성악가들도 자기들의 예술적재능을 남김없이 발휘하여 환희로운 불명절을 맞이하고있는 관람자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해외동포 예술인들이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명절을 뜻깊게 경축할 일념으로 성의껏 준비한 다채로운 종무들을 축전무대에 펼쳐놓았다.

음악무용종합공연 《태양의 노래는 영원히리라》를 끝맺으며 준비한 제13친선예술단 예술인들은 사회주의 조국을 온 세상에 빛내며 애국애족의 한길만을 뜻깊이 걸어 가려는 총련일군들과 제일동포들의 불변의 신념을 노래와 무용 《백두산 정상에서 부르는 노래》, 《혼성4중창 《조국과 민족의 노래》, 《시중군들》, 《천신의 꽃다발》, 《행이》, 《시중군들》 등의 무용종목들에서 로씨야 클래식국립무용단은 박력있으면서도 독특한 춤동작으로 관객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다.

쿠바 클래식레드독주자, 도이쉴란트 피아노연주자, 프랑스 알베르 마나르명칭 실내악단 현악4중주단은 여러 종류의 기악곡들을 세련된 연주기법과 조화로운 울림으로 훌륭히 형상하였다.

남성독창 《민족의 노래》, 여성독창 《조선노래 《인정의 세계》, 에스빠나 플라네프민속음악

2인무 《피죽도 하나》에서 출연자들은 온 겨레의 단합된 힘으로 삼천리강토우에 세계가 부러워하는 통일강국을 기어 올리세를 우리 민족의 드림없는 의지를 감명있게 형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명도따라 총련의 새로운 전성기를 열어 나갈 제일동포들의 불같은 열의를 담은 남성독창 《가리나 베투산으로》, 실화와 합창 《원수님 따라 총련앞으로》는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열화같은 칭송열기는 제31친선예술단

예술인들이 무대에 올린 남성독창 《오직 한마음》, 혼성2중창 《내 마음 언제나 그이곁에》 등의 종무들에서도 뜨겁게 분출되었다.

제중예술인들은 혼성중창 《조국찬가》, 남성독창 《바다만가》, 《오늘의 창성》을 비롯한 곡목들에서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현명명도 밑에 인민의 꿈과 이상이 현실의 세계를 《월광아 세파파》의 노래에 담아 훌륭히 형상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송명도 미메도 다 말고 이 세상 끝까지 따르며 안겨살 보금자리인 우리 당의 위대한

를,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품을 흥분한 성향으로 터친 남성독창 《내 심장의 목소리》는 장내를 격정적으로 설레이게 하였다.

국제고려인통일련합회예술단 성악가도 인민의 행복을 위해 그처럼 마음쓰시면 위대한 장군님의 로고와 그의 념원을 활짝 꽃피워가시는 경애하는 최고령도자동지의 크나큰 헌신의 세계를 《월광아 세파파》의 노래에 담아 훌륭히 형상하여 관람자들의 절찬을 받았다.

로씨야, 벨라루스, 라이, 싱가포르 예술인들이 출연한 교예, 요

술종목들이 이채를 띠었다. 체력교예 《모자재주》, 《어깨장대》, 《공재주》, 《발재주》, 《공중돌리기》, 기능요술 《어린이요술》 등의 종무들에서 출연자들은 여러가지 난도 높은 동작들과 해학적인 연기로 관객들을 기쁘게 해주었다.

여러 나라 예술인들과 해외동포예술인들은 국제적인 예술축전의 면모에 맞게 다채로운 종무들로 공연무대를 의의있게 장식함으로써 다가오는 태양절의 경축분위기를 더해 주었다.

절세위인들에 대한 만민의 열화같은 칭송의 마음들이 떠날들려 태양찬가, 위인송가들은 평양의 하늘가에 끝없이 메아리쳤다.

공연은 계속된다. 【조선중앙통신】



폴스카독창가일행의 여성독창 조선노래 《사랑하노라》



로씨야 모스크바볼쇼이국립교예단의 체력교예 《공재주》



벨라루스국립교예단의 체력교예 《발재주》

대절찬을 받은 관록있는 예술단체의 공연

로씨야 엠. 에. 빠뜨니즈키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합창단의 예술인들

자주와 친선, 평화는 세계 진보적인류의 공동의 념원이며 지향이다. 역사의 도도한 흐름을 힘있게 추동하며, 인류문명을 빛나게 장식하며 태양을 우러러 더치는 위인칭송의 메아리가 평양의 하늘가에 높이 울려 퍼진다.

위대한 명도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태양처럼 명실공히 인류공동의 명절입니다.》

로씨야 엠. 에. 빠뜨니즈키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합창단은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3차례나 보여드린 다다른 영광을 지니고있는 관록있는 예술단체이다.

세계의 수많은 나라와 지역들에서 훌륭한 공연활동을 벌여온 민속합창단은 4월의 봄 친선에

출석준비를 위하여 많은 품을 넣었다고 한다. 그것은 세계 진보적예술인들의 대회합, 권위있는 예술축전인 4월의 봄 친선 예술축전에 대하여 너무나 잘 알고있었기때문이었다.

합창단원들은 주체의 나라 조선에 대하여, 조선인민의 시대적지향과 강정정세에 대하여 더욱 깊이 연구하였으니 그에 기초하여 공연종목을 선택하고 형상을 완성해나갔다.

뜻깊은 태양절을 맞으며 진행된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보다 의미있는 종무들을 내놓기 위해 여러모로 모색하던 알베르 마나르명칭 실내악단의 노력과 함께 뜻 오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합창단원들은 자기들이 품어준 준비된 노래를 잘 불러 축전무대를 뜻깊게 장식할 마음속결의들을 다지였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주제예술의 발전도를 두껏이 보여준 축전개막행사의 선율과 개막공연은 참으로 황홀하였다.

그러나 흥분과 격정속에 깊어간 평양대회의 첫날밤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우리는 모르지 않았다. 축전개막행사가 있는 다음날 합창단원들이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는 관객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무대에 울려 퍼진 흥모의 노래와 더불어 우리는 합창단원들의 심장이 하나의 불같은 지향을 안고 고통겨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르고 부를수록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뜨겁게 여러웠으리라. 새기면 새길수록 주제조선의 태양으로 밝은 빛을 뿌려주시는 자애로운 모습이 심장깊이 간직되었으리라.

모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서와 주제예술의 발전도를 두껏이 보여준 축전개막행사의 선율과 개막공연은 참으로 황홀하였다.

그러나 흥분과 격정속에 깊어간 평양대회의 첫날밤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우리는 모르지 않았다. 축전개막행사가 있는 다음날 합창단원들이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는 관객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무대에 울려 퍼진 흥모의 노래와 더불어 우리는 합창단원들의 심장이 하나의 불같은 지향을 안고 고통겨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르고 부를수록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뜨겁게 여러웠으리라. 새기면 새길수록 주제조선의 태양으로 밝은 빛을 뿌려주시는 자애로운 모습이 심장깊이 간직되었으리라.

모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우리 민족의 정서와 주제예술의 발전도를 두껏이 보여준 축전개막행사의 선율과 개막공연은 참으로 황홀하였다.

그러나 흥분과 격정속에 깊어간 평양대회의 첫날밤이 어떻게 흘러갔는가를 우리는 모르지 않았다. 축전개막행사가 있는 다음날 합창단원들이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는 관객자들의 대절찬을 받았다.

공연무대에 울려 퍼진 흥모의 노래와 더불어 우리는 합창단원들의 심장이 하나의 불같은 지향을 안고 고통겨움을 확인할 수 있었다.

부르고 부를수록 인민의 지지와 신뢰를 받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인자하신 영상이 뜨겁게 여러웠으리라. 새기면 새길수록 주제조선의 태양으로 밝은 빛을 뿌려주시는 자애로운 모습이 심장깊이 간직되었으리라.

모친 고난과 시련속에서도

자기 수행, 자기 명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영원히 한길을 가는 훌륭한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친선의 정도 담아서 위대한 태양의 송가를 부르는 합창단원들의 노래는 뜻깊은 불꽃처럼 관객들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며 평양의 하늘가에 높이 높이 울려 퍼졌다.

절세의 위인을 흠모하며 따르는 인민의 마음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

우리와 만난 알베르 마나르명칭 실내악단은 이렇게 말하였다.

한없이 소박한 모습으로 우리를 절절하게 대 해주시던 김정일명도자에 대한 나의 존경심은 오늘날 변함없다. 나의 마음은 지금 고향산대양궁으로 달려가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 건강하시고 조선인민에게 평화와 번영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장내를 진감한 위인칭송의 노래, 절정 그것은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세계 진보적인류들의 다함없는 흥모심의 분출이었다. 그이께서 쌓으신 위대한 업적에 대한 칭송이었다. 심장은 말이 없었다. 하지만 절세위인들에 대한 애독과 흥모의 정은 오직 심장으로만 터칠수 있다.

우리는 로씨야의 친선사절들이 행하는 심장의 언어를 들었다. 그들이 심장으로 부르는 절절한 노래, 온 장내를 진감시킨 위인칭송의 노래를 통하여 우리는 4월의 봄축전이 전하는 심장의 언어, 그것은 주체의 태양칭송, 태양흥모, 태양만세이라는것을 가슴뜨겁게 느꼈수 있었다.

클 뵤스기자 김성룡 사인 뵤스기자 리충성

위대한 명도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을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 위대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몽골전군협주단은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더불어 우리 인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긴 예술단체중의 하나이다.

한것은 축전마다 우리 나라 노래들을 훌륭히 형상하여 무대에 펼쳐놓았기때문이다.

13번째로 남긴 인상

협주단에서는 이번 축전에 8곡의 우리 나라 노래를 준비해 가지고 참가하였다.

이렇게 많은 조선노래를 안고 축전에 참가하는 이번이 처음이라고 한다.

하지만 우리가 이들의 공연에 류다른 관심을 돌린것은 단순히 곡목수에만 있지 않다.

영생 불멸의 혁명송가 《김정일장군의 노래》와 《김정일장군의 노래》, 노래 《장군님 베풀어라 달리신다》, 《발걸음》...

이렇게 한국곡이 모두 위대한 수령님들과 경애하는 원수님에 대한 칭송의 노래들이었기때문이다.

협주단원들은 우리의 만난 자리에서 축전을 준비하면서 조선노래선정에 각별한 관심을 돌렸다고도, 조선인민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다시말하여 명곡이라고 할수 있는 노래들을 고르고 보니 그것은 모두 자기 수행을 흠모하고 따르는 노래들이었

다고, 조선의 명도자들에 대한 열화같은 흠모, 이것은 우리 모두의 마음이기도 하다고 이야기 하였다.

하기에 이들은 몽골주제 우리 나라 대사관성원들의 격구적인 마음을 받으며 가사말을 정확히 하고 노래가 담고있는 사상감정을 진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였다.

인류의 영원한 태양을 우러러 만민이 더치는 열화같은 흥모의 분출인양 이들이 축전무대를 부르는 위인칭송의 노래들은 관객들의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세상에는 자기나름의 역사를 자랑하는 명목들이 많지만 조선의 4월이 더치는 위인칭송의 노래, 이보다 더욱 훌륭한 명목은 없다. 바로 이것이 13번째로 축전에 참가한 몽골전군협주단이 첫 공연을 통하여 우리에게 남긴 인상이다.

여성가수가 안고온 기념사신

협주단의 성악배우인 공중배우 차드라발 바야트라,

그는 우리 나라 노래 《장군님 여기는 최전연입니다》를 절절하게 불러 뜻깊은 축전무대를 이채롭게 장식하였다.

알고보니 여성가수가 이번 축전에 안고온것은 위인칭송의 노래만이 아니었다.

지금으로부터 20여년전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였던 그는 위대한 수령님을 모시고 영광의 기념사신을 찍는 크나큰 행운을 지니었다.

본사기자 조 함 III

《조선노래를 부르고 기억했습니다》

로씨야 엠. 에. 빠뜨니즈키명칭 국립아카데미아민속합창단은 위대한 장군님께 자기들의 공연을 3차례나 보여드린 다다른 영광을 지니고있는 관록있는 예술단체이다.

우리 민족의 정서와 주제예술의 발전도를 두껏이 보여준 축전개막행사의 선율과 개막공연은 참으로 황홀하였다.

자기 수행, 자기 명도자만을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며 영원히 한길을 가는 훌륭한 인민에 대한 부러움과 친선의 정도 담아서 위대한 태양의 송가를 부르는 합창단원들의 노래는 뜻깊은 불꽃처럼 관객들의 가슴에 활활 타오르며 평양의 하늘가에 높이 높이 울려 퍼졌다.

절세의 위인을 흠모하며 따르는 인민의 마음에는 국경이 따로 없다. 우리와 만난 알베르 마나르명칭 실내악단은 이렇게 말하였다.

위대한 명도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세계 혁명적인민들은 수령님을 인류가 낳은 위인중의 위인, 위대한 정치가로 높이 칭송하고있다.》

특색있는 요술의 세계 라이요술단에서

지금 평양교예극장에서는 제 31차 4월의 봄 친선예술축전에 참가하기 위하여 우리 나라에 온 세계 여러 나라 교예단체들이 성의껏 준비한 교예가 매 일 성황리에 진행되어 관객들의 절찬을 받고있다.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절절한 그리움 강산에 차넘친다

영광의 땅에 만풍년의 씨앗을 뿌리며

증산군 풍정협동농장 일군들과 농장원들

지금 사회주의협동농장을 가꾸어가는 우리 농장원들의 일손에 불이 밝아지고 있다.

얼마전 우리가 찾았던 증산군 풍정협동농장에서도 일군들과 농장원들은 포전마다 성실한 구슬땀을 바치고 있었다.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과 군대와 인민은 위대한 김일성동지를 주체의 대양으로 영원히 높이 받들어 모시고 수령님의 성스러운 혁명업무를 빛나게 계승완성 하셔야 한다.》

약동하는 봄의 숨결이 한껏 느껴지는 드넓은 논밭에서 우리와 만난 농장원들은 경사스러운 4월이 오니 농장을 찾고 또 찾아오며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는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가슴 가득 사무쳐온다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해마다 씨뿌리는 계절이 오면 우리 풍정협동농장 농장원들은 어버이수령님께서 가르쳐 주신대로 반드시 알곡증산의 풍성풍요를 부를 끝을 결심하고 만풍년의 씨앗을 뿌려갑니다.》

증산군 풍정리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나라의 농업생산을 위하여 찾고 오셨던 우리 조국의 수많은 농장들중의 하나이다. 어버이수령님께서 농장별에 남기신 하라는 헌신적 애정, 모든 일군들과 농장원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그들을 알곡증산에 로 힘있게 고무추동하고 있었다. 그들의 앞장에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신하신 영광의 포전에서 일한다는 남다른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있는 제9작업반원들이 서 있었다.

올해 씨뿌리기작업이 한창이던 어느날 제9작업반 포전에 나갔던 농장원들은 그곳 농장원들의 잔인 일손씨에 탄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훌륭한 벼를 재배하는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씨뿌리기간격도 자를 대고 쟁쟁처럼 푸갈았기 때문이다.

농장일군이 앞으로 이 작업반은 와보지 않고도 마음을 놓았다. 작업반원들도 그의 말이 옳다는 듯 깊은 눈길을 주고받았다.

수심년전 농장을 찾으신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9작업반 팔공장을 돌아보시다가 비질 단속에 벼이삭들이 섞여있는 것을 보시고 안색을 흐리시었다. 이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농장 일군들에게 농사를 아무리 잘 지어도 이렇게 거칠게 일하면 소용이 없다고 하시며 모든 농사일을 잔치처럼 함대 대하여 간

곡하게 교시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 걱정을 끼쳐 드린 그날의 벼이삭은 수십년이 지난 오늘도 작업반원들의 마음 속에 아리게 맺혀있어 그들은 농사일을 하나 해도 애국의 마음을 다 바쳐 알심있게 하고있었던 것이다.

농장에 남기신 위대한 수령님의 유훈을 심장에 아로새기고 그 관철을 위해 아글라글 애쓰는 작업반원들의 고결한 충정은 그들이 지난 기간 자체의 힘으로 창안제작한 논벼수확기계와 씨뿌리는 기구를 비롯한 수많은 농기계와 농기구들에도 어려웠었다.

위대한 수령님의 숭고한 뜻을 높이 받들려는 하나의 지향으로 굳게 뭉친 작업반원들이 이룩해 가는 집단적혁신은 알곡증산에 로 이어졌다.

작업반은 해마다 년간계획을 넘쳐 수행하고 축산에서도 성과를 거두었으며 살림집건설과 생산문화, 생활문화확립에서도 모범적인 단위로 되어 2803대혁명붉은기작업반의 영예를 지니고 있었다.

농장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길이 빛내어갈 불같은 열정은 농장별 한복판에 자리잡은 청년작업반 포전에서도 뜨겁게 느낄 수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친히 정해 주신 농장의 정보당 알곡수확목

표를 거어어 절명하기 위한 투쟁을 해마다 즐기며 벌여온 청년작업반원들속에서는 올해 초 절명은 거름을 포전마다 더 많이 내기 위한 달없는 경쟁이 벌어졌다.

길어가는 밤 관리위원회에 회의록 갔다가 돌아온 청년작업반장은 작업반원들을 돌아보다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온종일 거름생산을 하느라 돌아다니는 것을 생각하고 생각했던 작업반원들의 잠자리가 텅 비어있었던 것이다. 집착되는 것이 있어 콩주창고에 가보니 아니나다를까 질퍽이며 손발구지들이 하나도 없었다.

《이 등우들이 끝내...》

개바닥과기는 다음날부터 시작하고 했는데 어느새 작업반원들이 그 일에 달라붙은 것이었다.

털모자를 다시 꼭 눌러쓴 청년작업반장은 부랴부랴 눈길을 헤쳐 10리나 떨어진 작업반으로 향하였다. 목적지에 거의 다달았을 때 귀에 익은 목소리를 들었다.

《한심한 더 담소요, 어서요!》 하며 무거운 짐들을 진 동을 그냥 돌려내며 서 있는 양심성, 김효성, 명우, 최정심 등 무를 비롯한 처녀들, 《그만하면 됐소, 작업반에 등우들밖에 없는데 알겠소.》라고 하며 달빛이 번들거리는 개바닥을 자기들의 손발구지에 들뜰뜰 딛는

장철웅, 한성광, 박일광 등 무를 비롯한 작업반원들.

그들속에는 년로보장나이가 지난 조동환 등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을 농장포전에 모시었던 그날의 감격을 심장에 안고 새 세대 농장원들의 가슴마다에 수령님의 숭고한 뜻과 불멸의 영도업적을 새겨주기 위해 청년작업반으로 자진해 온 로 세대 농장원이었다.

속에서 무엇인가 울컥 치미는 것을 느낀 청년작업반장은 한나어린 작업반원의 질풍을 벗겨들며 말했다.

《등우들, 좀 쉬고 해야지 오늘만 일하고 배일은 안하겠소?》

그러자 작업반원들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다신하신 영광의 포전을 기쁨있게 할 거름천만만 닢이면 얼얼할 쉬지 않고 일해도 힘이 솟을 것 같다고 한사람 처럼 대답하는 것이었다. ...

풍정협동농장의 하루하루는 이런 불같은 지향과 열의속에 흐른다.

아직은 씨뿌리는 계절, 그러나 우리의 눈앞에는 이룩 일군들과 농장원들이 가꾸어가는 푸른 논밭이 아니라 황금물결 설배이는 아득한 벼바다가 보이는 듯싶었다.

사회주의대지의 주인들이 세세년전 번갈아 가꾸어가는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다함없는 충정과 열의의 소중한 열매가, 본시기자 허 명숙

안주뽕프공장 주들직장 로동계급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자기 단위에 깃든 위대한 수령님과 장군님의 영도업적을 높이 받들고 유훈을 철저히 관철하여 수령님과 장군님의 생전의 뜻과 념원을 험실로 꽃피워야 한다.》

사람들은 안주뽕프공장 주들직장 로동계급을 두고 칭송기에 사는 집단이라고 부르며 부러워하고 있다.

직장사람들의 대부분이 청년들이라는 것과는 판별되어있지만 특하는 그들의 기술능수준이 높고 그 어떤 주들물도 손색없이 만들어내기에 문이다.

이러한 자랑한 성과는 결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공장에 뜨겁게 어러워 있는 위대한 수령님의 불멸의 영도업적을 높은 생산성과 로 빛내어갈 직장로동계급의 불같은 마음들이 안아온 소중한 결실이다.

그들의 가슴마다에는 나라 일에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여러차례나 공장에 찾아오시

어 이곳 로동계급이 이룩한 투쟁성과도 고무해주시며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 주신 어버이수령님에 대한 그리움이 소중히 간직되어있다.

지난해 10월 직장로동계급 앞에는 새로운 뽕프생산을 위한 주들물생산과제가 맡겨졌었다.

그 뽕프의 날개는 모양새가 특이하여 주들물생산에서 실재가 거둬졌고 실수물도 높지 못하였다.

근본원인은 주들물을 부여낼 때 쇠물이 응고되는 과정에 나오는 가스가 제때 빠져지지 못하여 소체에 구멍이 생기는 데 있었다.

그 해결방법을 찾아 서로의 창조적지혜를 합쳐서 어느 길은 밤 작업현장을 돌아본 직장장기청년들의 발걸음은 증형작업반에서 멈추었다.

조형공 신철을, 최정철 등 무가 닷에 밤을 이어 주들물의 실수물을 높이기 위한 시험을 거듭하고있었던 것이다.

직장장은 그들의 손을 말없이 잡아주었다.

서로의 창조적지혜가 합쳐져 속의 그들은 끝끝내 주들물을 자체의 힘으로 만들어내기도 하였다.

영광의 일터를 빛내어갈 일념을 안고 펼쳐나선 이들의 앞길을 그 어떤 난관도 가로막을 수 없었다.

지난 2월 용인로에서 망금 부여된 쇠물을 바가지에 담고

조형작업장으로 옮겨가던 기중기가 뜻밖의 일로 가통을 멈춘 적이 있었다.

조금만 시간을 더 지체하게 되면 바가지엔 든 쇠물이 굳어질수는 위급한 청황앞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때 용형작업반원들이 손수 쉼을 팔고 작업현장으로 달려 왔다.

《이런 때야야 늘 쇠물을 다루는 우리가 앞장에 서야지요.》 이렇게 말하며 펄쩍 뛴 쇠물이 든 바가지를 손수께에 옮겨심고 조형작업장으로 내달리는 그들의 모습은 당의 호소에 피끓는 심장으로 화답해 나서던 천리마대고조시기 장건의 로동계급의 모습을 방불케 했다.

어찌 이룰뿐이라.

비록 로동원들은 젊어도 책임감과 헌신성을 발휘하여 높은 기능이 요구되는 대형뽕프 주들물을 제때에 손색없이 만들어내고있는 대형작업반의 윤철수, 최진철 등 무들의 가슴에도, 매일 맡겨진 계획을 필연 넘쳐 수행하고있는 소형작업반의 김금녀, 현성희 등 무들의 가슴에도 어버이수령님 다신하신 영광의 일터를 빛내어갈 일념을 안고 펼쳐나선 이들의 앞길을 그 어떤 난관도 가로막을 수 없었다.

본시기자 리 건 일

크나큰 그 믿음 심장에 새겨안고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공무분공장에서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자력갱생이 우리가 살길이며 그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이 길로 나가야 합니다.》

두해전 12개 마을 이른 새벽, 남들이 아직 단잠에 들어있던 그 시각 검덕광업연합기업소 공무분공장의 어느 한 곳에서 불빛이 울려나오고있었다. 고요한 정적을 깨뜨리며 마당가에서 서성거리는 여러 사람들의 발자국소리가 들려왔다. 그들은 현장에서 진행되고있는 경질합금과 정머리본체의 납집에 대한 실질결과를 기다리는 공무분공장의 일군들이었다.

《오늘까지 16번째 실험실대성공합가요?》

누구인가의 위구시어린 목소리에 지체한 리주필등은 머리를 끄덕이였다.

《믿습니다.》

불현듯 그의 눈가에는 지나간 일들이 어찌런듯 삼삼히 어러났다.

처음 그들이 정머리를 자체로 만들었다는 결의해나섰을 때 많은 사람들이 머리를 갸웃거렸다. 일부 사람들은 괜히 고생을 사서 하지 말라고 하였다.

그때마다 그들은 단호히 말했다.

우리 검덕의 로동계급에 대한 당의 믿음과 기대는 크다. 하늘같은 그 믿음, 그 기대에 보답할 수만 있다면 산도 떼어놓고 바

다도 메워야 한다.

기술부원 최영일 등 무를 책임자로 하는 기술혁신조가 조직되었다.

그들로서는 처음 해보는 일이자 이 길로 가는 것조차 모르는 것이 아니었다.

제일 난문제는 경질합금과 정머리본체의 납집문제였다. 부작 새기가 높은 납제로를 자체로 개발하기 위해 최영일 등 무는 정열을 쏟아부었다.

하지만 성공이라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은 멀고도 험난했다. 한번두번 실패가 계속되자 동료하는 사람도 없지 않았다.

어느날 또다시 실험실에서 실패했다. 모두가 맥을 놓고 주저앉았을 때 연합기업소의 책임일군이 실험에 절실히 필요한 자재를 한가득 싣고갔다. 그날 책임일군은 검덕의 평범한 광부들에게 들려주신 위대한 수령님의 하늘같은 사랑에 대해 감회깊이 들려주었다.

지금으로부터 수심년전, 검덕의 광부들은 어버이수령님의 탄생일을 맞으며 경속연회에 참가하는 크나큰 영광을 지니게 되었다.

경속연회장에 검덕의 광부들을 친히 불러주시고 우리 로동계급이 건강해야 조선이 건강하다고 하시면서 일할라는 검덕의 로동계급을 비롯한 우리 나라 로동계급의 건강을 위하여 잔을 들자고 신함으로 축배잔을 높이 들어주시던

어버이수령님.

참가자들은 위대한 어버이의 대에같은 사랑에 목이 매여 두 볼을 눈물로 적시었다.

어버이수령님을 따라 영원히 충정의 한길을 이어갈 맹세로 심장을 불태우던 그날의 광부들, 그들이 바로 검덕의 전대대들이었다.

공무분공장의 초급당일군이 한결을 나갔다.

일편단심 당을 받들어 충직하게 살아가는 전세대대처럼 오늘날의 만리마대전군의 앞장에서 내달리자는 그의 호소에 모두가 화답해나섰다.

이렇게 흘러온 격전의 날과 달이었다. ...

최영일 등 무가 달려나오며 기쁨에 넘쳐 소리쳤다.

《저때부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와- 환성이 터져올랐다. 서로 부둥켜안고 새날이 푸르푸르 밝아오는 하늘을 바라보는 그들의 얼굴마다에는 승리자의 웃음이 일었다.

자신의 힘으로 정머리를 만들던 날 그들은 자기 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없었다면 자력갱생이 빈소리로 떠나는 것을 다시 금 깊이 절감하였다.

이런 미더운 진초병들이 있어 마천령 피스리역에서 역세 부리들 내린 굵물은 나라의 믿음직한 대우색검속광물생산기지 그 위용을 떨치고있는 것이다.

본시기자 신 철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었다.

《우리 인민과 같이 그로룩 자기 수령에게 충실하고 고상한 도덕의리를 지닌 인민은 세계 그 어느 나라에도 없습니다.》

얼마전 우리는 조선혁명박물관의 한 일군으로부터 비가 오나 내일 오나 연합당이 만수무단으로 돌아와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더 밝고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한 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게 되었다.

중구역 창광동에 사는 박동순이라는 그 로인은 70나이를 가까이하고있었는데 그가 창광동에 새 보금자리 편짓는 지금으로부터 24년전 어느 봄날이었다. 그날 그는 항구그옥한 꽃다발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그러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험한 농촌생활이란 농촌길은 다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이 못 견디게 가슴에 사무쳐왔다.

바로 며칠전까지만 해도 승호로 알려진 그는 로에서 방축원으로 일하며 수령님을 풍요한 포전에 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것만 같았다.

그날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시는 평양에서 살게 된 감지를 안고 수령님들을 더 잘 받들어 모시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그날부터 그는 명절날이면 정성껏 엮은 꽃다발을 안고 만수무단언덕에 오르곤 했다.

인민반장일을 하면서 자기

충정의 꽃 한생토록 피워가리

중구역 창광동에 살고있는 박동순로인의 생활에서

사는 마을과 거리를 언제든 위대한 수령님들을 모실 수 있게 알뜰하게 거꾸고 가정에서 꽃도 가꾸면서 수도 영양을 더 받고 아름답게 꾸리기 위한 사업에 남보다 더 정중히 모시기 위한 사업에 지성을 바쳐가고있는 한 로인에 대한 이야기를 들게 되었다.

중구역 창광동에 사는 박동순이라는 그 로인은 70나이를 가까이하고있었는데 그가 창광동에 새 보금자리 편짓는 지금으로부터 24년전 어느 봄날이었다. 그날 그는 항구그옥한 꽃다발을 안고 위대한 수령님의 동상을 찾았다. 그러나 인민의 행복을 위해 한평생 험한 농촌생활이란 농촌길은 다 걸으신 위대한 수령님에 대한 고마움이 못 견디게 가슴에 사무쳐왔다.

바로 며칠전까지만 해도 승호로 알려진 그는 로에서 방축원으로 일하며 수령님을 풍요한 포전에 모실 그날을 손꼽아 기다린 것만 같았다.

그날 그는 위대한 수령님들께서시는 평양에서 살게 된 감지를 안고 수령님들을 더 잘 받들어 모시기 위한 사업에 모든것을 다 바칠 결의를 굳게 다지였다. 그날부터 그는 명절날이면 정성껏 엮은 꽃다발을 안고 만수무단언덕에 오르곤 했다.

인민반장일을 하면서 자기

의 가슴속에 어버이수령님들에 대한 무한한 충정의 마음을 심어주는 계기로 되었고 경애하는 원수님을 받들어 공부도 잘하고 나라위환 좋은 일도 스스로 찾아내게 하는 자양분으로도 되었다.

용진이가 소학교학생이 되어 며칠이 지난 어느날이었다.

《할머니, 이번 태양절에는 우리 학교등우들이랑 함께 만수무단언덕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동상을 찾아가자요.》

이렇게 말하는 손자애의 머리를 쓰다듬는 박동순로인은 맞을 는 뜨거웠다. 만수무단언덕을 찾은 나날 키도 크고 마음도 플라보게 자란 손자였다.

이름날 박동순로인은 많은 판리도구를 들을여 마련하여가지고 손자애가 다니는 평양제4소 학교를 찾았다.

그때부터 박동순로인은 평양제4소 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수무단언덕을 찾았다.

넉넉한 몸에도 후대들에게 충

이렇게 말하는 손자애의 머리를 쓰다듬는 박동순로인은 맞을 는 뜨거웠다. 만수무단언덕을 찾은 나날 키도 크고 마음도 플라보게 자란 손자였다.

이름날 박동순로인은 많은 판리도구를 들을여 마련하여가지고 손자애가 다니는 평양제4소 학교를 찾았다.

그때부터 박동순로인은 평양제4소 학교 학생들과 함께 만수무단언덕을 찾았다.

넉넉한 몸에도 후대들에게 충

정, 애국의 마음을 심어 주며 번함없는 길을 걷고있는 박동순로인, 그는 우리에게 말했다.

《위대한 수령님들을 충정대 받들어모시는것은 이 나라 공민이라면 너무나 응당한 본분입니다. 숨이 지는 순간까지 위대한 수령님들을 천세만세 받들어 모시는 길에 충정을 바치겠습니다.》

그것은 박동순로인의 진정이였다.

자나깨나 위대한 수령님들을 절절히 그리며 충정의 꽃을 피워가는 이 나라 인민의 불같은 마음이었다.

본시기자 오 은 별

평안북도 양로원 준공식 진행

우리 당의 인민사랑, 인민존중의 숭고한 뜻에 떠받들려 평안북도 양로원이 새로 일떠서 준공되었다.

의주군 대산리의 양지바른 산기슭에 건설, 식당, 오락실, 치료실 등이 갖추어진 양로원이 훌륭히 일떠섬으로써 가장 우월한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의 인민적시책속에서 년로자들이 여생을 마음껏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준공식이 13일에 진행되었다.

평안북도당위원회 위원장 김중오동지, 도인민위원회 위원장 정경일동지, 관제부원 일군들, 건설자, 양로원종업원들과 보양생들, 의주군안의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하였다.

준공사를 김중오동지가 하였다.

연설자는 도양로원은 언제나 인민을 위한 시책을 국가적인 중대사로 내세우시고 인민들에게 모든것을 다 바치신 위대한 수령님들의 평생소원을 풀어드리

려서 우리 당의 뜨거운 손길에 솟아난 사랑의 창조물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는 당의 숭고한 뜻을 받들고 도안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양로원건설에 한사합일이 펼쳐나 헌신의 구슬땀을 아낌없이 바치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건설자들이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긴장한 전투를 벌려 건물기초공사, 골조공사 등 전진적공사를 힘있게 다그쳤으며 도와 군안의 일군들

과 근로자들도 물심방면의 지원으로 완공을 앞당기는데 적극 이바지하였다고 그는 말하였다.

그는 종업원들이 양로원의 건물과 설비, 비품들을 적극 애호 관리하며 보건위생학적으로 맞게 보양생들의 건강관리에 깊은 관심을 돌려 그들이 건강함으로 아무런 불편도 없이 즐거운 나날을 보내도록 함대 대하여 언급하였다.

보양생들은 우리 당을 받들어 행을 충직하게 살아온것처럼 로의를 모르는 열정과 기백으로 후대들에게 백옥같은 충정의 일편단심과 죽어도 버리지 않는 불굴의 혁명정신을 피뎠기로 넘겨주어야 할것이라고 그는 말하였다.

연설자는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경애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의 령도를 받들어 우리 당의 년로자보호정책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파시어나가며 사회주의강국건설에 참담하게 이바지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새로 일떠선 양로원을 돌아 보았다.

조선-유럽 협회 대변인 대담

조선-유럽 협회 대변인은 영국이 우리 선박들의 해상무역을 감시한다는 미명하에 조선반도 주변수역에 군함을 파견한것과 관련하여 13일 조선중앙통신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최근 영국은 그 무슨 유엔안보리사회(세계평화)를 지휘한다고 하면서 조선반도 주변수역에 저들의 군함을 파견

하는 구회 도발적인 행위를 하였다.

이것은 온 세계가 환영하는 북남관계개선과 조선반도긴장완화의 흐름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인 동시에 우리 공화국의 자주권에 대한 명백한 침해행위로 된다.

지나해 우리 국가핵무력의 《연방위협설》을 떠벌어든 영국이 이번에 군함까지 파견하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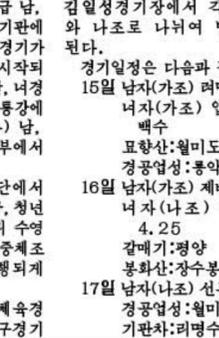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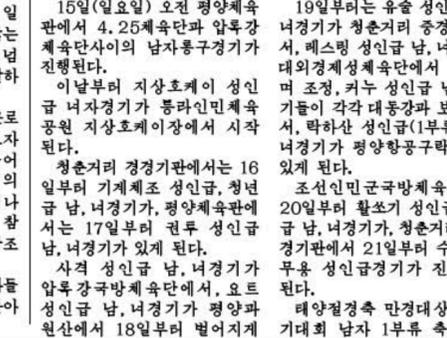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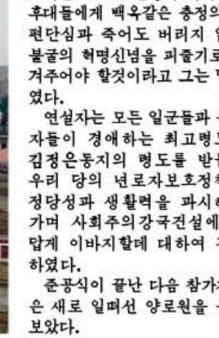
부산을 피우려는 것은 조선반도정세에 대한 초보적인 리해도 가지지 못한 어리석은 행위로서 시대적흐름에 역행하여 대결과 긴장각도를 부추기는 시도라고 밖에 달리 볼수 없다.

우리는 적대세력들의 제제술에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지만 우리의 자주권을 조금이라도 침범하려는데 대해서는 그 내역과 형태에 관계없이 절대로 용

납하지 않을것이다.

적대세력들이 추구하는 그 무슨 《선박단속》이요, 《검열》이요 하는것은 본질에 있어서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해상봉쇄행위이며 전쟁행위이다.

영국은 그 누구의 비위나 맞추며 예거거기 돌이킬것이 아니라 제 집안일이나 바로 처리하는 것이 좋을것이다.



(가조) 보양생: 평양 18일 남자(가조) 리명: 소백수 여자(가조) 내고향: 월미도

암육장: 몽양산 표향산: 경공업성

19일 남자(가조) 김해기: 평양 여자(나조) 제비: 평양 리명수: 장수봉 김해기: 봉화산

20일 남자(나조) 신봉: 월미도 암육장: 리명수 경공업성: 리명수 (가조) 제비: 보봉강

21일 남자(가조) 리명: 평양 여자(가조) 소백수: 몽양산 내고향: 경공업성 암육장: 표향산

[조선중앙통신]